



더위엔 폭포가 최고

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1.6도까지 치솟은 5일, 구례군 산등면 수락폭포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높이 15m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신경통과 근육통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인 대책위’ 협상력·정치력 발휘

‘별관 문제’ 대결단 내려야

활동 시한 10일 남아

활동 마감 시한 10일을 남겨둔 ‘구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이하 10인 대책위)가 옛도청 별관 철거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5월단체,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등을 상대로 한 협상력과 정치력 발휘가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1년 여동안 별관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10인 대책위 마저 해법 도출에 실패하면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0인 대책위는 6월3일 출범한 10인 대책위는 오는 15일 활동을 마감하고 별관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0인 대책위는 그동안 별관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역 시민사회의 결집된 의견을 이끌어내는 등 일정 역할을 해냈다.

최근 광주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 원탁회의’는 ‘5월의 문’(다수안·별관 1, 2층을 뚫어 타날식으로 만드는 것), ‘별관 3분의 1 이상 존치안’(소수안)을 도출,

10인 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이 안을 “이미 검토를 거쳐 수용 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별관 철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도 “고통을 감수하고 내놓은 양보안”을 거부할 경우 별관의 원형보존 밖에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단과 5월 단체는 ‘10인 대책위’가 마련한 광주시의회 토론회, 방송사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10인 대책위가 5월 단체, 추진단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중인 시민 여론조사도 양측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책사업을 여론 조사로 변경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고, 5월 단체와 지역시민 단체는 “추진단이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통해 별관철거 문

제를 시민들에게 왜곡 전달했다”며 여론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10인 대책위가 추진단과 5월 단체로부터 중재안 마련 등 별관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양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0인 대책위가 남은 활동 시한 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별관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협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위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10인 대책위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10인 대책위가 별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화 못한 여야... 다시 꼬인 정국

비정규직법·미디어법 협상 원내대표 회담 결렬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법안 협상을 위한 5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정국경색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법 시행 유예기간을 애초 2년에서 1년6개월로 양보한 뒤 이날 또다시 ‘1년 유예안’으로 한 걸음 물러섰으나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 또는 그 이하 1년으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회담에서도 실업 사태를 막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시행에 초점을 맞춰 가는 것이 옳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수정제안한 ‘1년 유예안’을 정면 거부했다. 미디어법 역시 지난 주 여야 4차회담, 6차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면

서 한때 희망이 보이는 듯 했으나 내용 면에서 한나라당의 ‘6월국회 표결처리’ 주장과 민주당의 ‘9월 정국국회 이월’ 요구가 정면대립,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려는 것으로 알려져 6월 임시국회가 자칫 파국으로 치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앞 종양을 앞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당은 직권상정시 실효적지향하는 방침이어서 자칫 지난 연말연초와 2월 임시국회에 이은 세 번째 입법대치가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녹색기술 R&D 지원

2조8천억으로 확대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이 오는 2013년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때까지 1조1천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관련기사 3면> 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 만기 녹색 장기예금과 3년, 5년 만기의 녹색채권도 발행되면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녹색투자촉진에 관한 자금유입 원활화방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해 R&D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관련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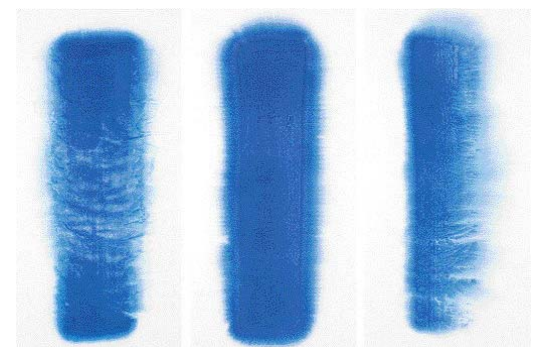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올해 600억원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 2013년까지 1조1천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만든다.

■/연합뉴스



광주일보가 매주 월요일마다 선보이는 ‘월요 갤러리’는 문화수도 광주와 여향 전담을 이끌어갈 지역 대표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www.kwangju.co.kr)를 통해 작가의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운작 ‘순수형태 일획’



<140×70cm·화선지에 담채>

획 하나에 일생의 회로에라이 배어있다.

서양화가 강운(43)은 지난 2000년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에서 구름을 소재로 한 ‘순수형태 생성’ 연작을 선보여 국내외 화단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인공이다. ‘순수형태 일획’ 시리즈는 그가 수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화순군 화순읍 작업실에서 집거

하며 새롭게 일구어낸 작업이다.

화폭에 투명한 과녁 색이 스며들고 번지는 과정을 표현한 일획은 마치 도(道)의 경지를 느끼게 한다.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으로 지난 5월 개막한 제4회프라하비엔날레(5월14일~7월26일)에 광주작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 화순읍 화순로 100-1

화순의 미래상

태양도시 (SOLAR CITY)